



강사님의 간략한 프로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국에서 비즈니스와 프랑스어를 전공했으며, 프랑스 그랑제꼴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어와 영어번역을 전공하였고, 최종적으로 마케팅 석사 과정을 영국에서 마쳤습니다. 영국에서 주로 호텔업계에서 근무를 13년간 근무를 했으며 그리고 미국 회사와 대학교에서 마케팅 쪽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한국에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 방법이나 교육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한국의 영어교육 방법 중 학교 교과 과정에서의 변화는 오랜기간이 흘렀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해식, 단어 암기, 단어테스트 그리고 문법식 설명 등 그 학습과 시험의 기술적인 면들이 옛날의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시험기간 동안 교과서를 외우는 위주의 학습 방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기도 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게다가 많은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암기능력을 이용해서 향후에 영어 자격증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 시험 스킬 답안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정석인 줄 알고 그 방식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 후 만족한 영어의 결과에만 집

글로벌교육사업본부

Jenny Cho 강사

“영어를 기술적인 영역이 아닌 온몸으로 느끼면서 새로운 일부를 자기 내부에 형성시켜야 합니다.”



태광실업 학생들과 영어 토론하는 장면

중하다 나중에는 본인의 실질적인 능력은 전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거부감을 가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경험한 것은 우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통해 자발적인 사고와 응용력을 개발시키는 방법이 영어 학습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며 자연스런 토론의 기초를 다지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가 프랑스 국립 어학당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동안 가장 놀라운 경험으로, 어떤 레벨의 언어 능력과 관계없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결합시켜서 티칭 방식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며 어원, 문화, 에티켓 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언어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 방식을 병합한 수업을 주로 강조합니다. 어떤 특정한 언어적 표현이나 개념을 설명하기 전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그 후 다양한 답변을 유도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수업이 토론의 형태를 띄게 만들어 일종의 warm-up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저의 답은 문화와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서 근거한 자료를 통해 그 나라의 독특한 표현과 사고가 이뤄지는 거라는 문화적 이해를 통해서 경험 학습으로 수업을 주도합니다.

결국,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수용하는 자세로 열린 뇌가 준비되어야 이해를 하면서

언어를 통해 또 다른 자아가 형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학습법은 영어와 한국어의 다른 점을 알고 영어를 기술적인 영역이 아닌 온몸으로 느끼면서 새로운 일부를 자기 내부에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꿈꾼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경험상에는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는 영어에는 "Foster care"라는 제도가 잘 정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친 부모가 양육능력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길러주는 제도입니다.) 주변에서 십대 미혼모가 아이를 위 제도에 맡기고 키우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foster parents가 은퇴하신 교사였는데 흔쾌히 키워주며, 사랑스런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줘서 고맙다며 정성스럽게 교육한 결과 영국의 Oxford 대학교에 가게 된 것을 본적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Local news에도 나오며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양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저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는 영어 강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캐럿과의 수업을 통해서 초·중·고생부터 60대 대기업 임원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의 수업 경험에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저와의 수업을 통해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선생님의 기다려주는 인내로 서서히 자신감을 얻어 가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정말 뿌듯 했습니다. 또한 주재원 파견 목적으로 저와 공부하여 원하는 성적을 획득해서 그들의 꿈에 다가 설 수 있는 기회를 도와 준 것도 저에게는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보람은 영어라는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자기능력도 동시에 성장하며 자기 성취에 흡족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저의 행복감도 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현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항상 수업 첫 시간에 한국에서 말하는 "단기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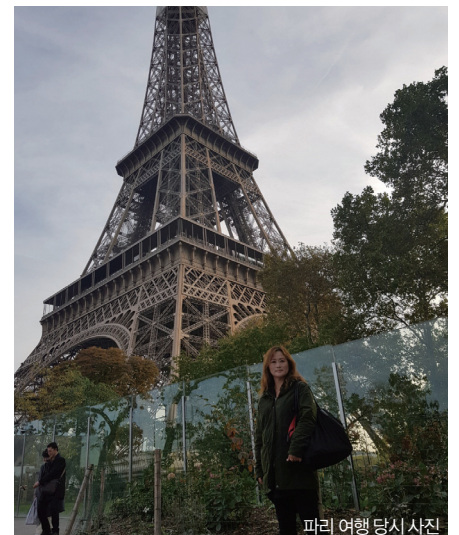
법, 90일 영어 완성" 등등은 마케팅의 일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를 공부 할 때는 시간 보다는 시대에 중점을 두라고 합니다.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는 Hybrid형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 되며 그 준비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영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효과와 학습자 호응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시작 될 때, 비대면 수업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근무 할 당시 기업 온라인 미팅도 가끔씩 주최 하였지만 큰 흥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더욱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소그룹과 개인 수업을 진행 하면서 더욱 더 집중을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다른 지역에서 가끔씩 서로의 지역 특색, 날씨 등을 얘기하면서 수업을 시작 할 때 정말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작은 공간에서 마주보며 상호작용하는 것에 더욱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학습하는 분량의 강도가 오프라인 보다 더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상으로만 소통하니 조용하고 소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 박람회에서 학생들과 단체 사진



파리 여행 당시 사진